



특허청 **희망의 새시대**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기업성장 견인

www.kipo.go.kr



경제
혁신
3.0
정부

보도자료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과 장 류동현 서기관 김신용	042-481-5879 042-481-5846
	2015년 12월 7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6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심판원, 2015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시상

- 최우수작 등 우수 판례평석 6건 선정 -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지난 4일 오후 2시 특허심판원장실(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에서 선정된 6건의 우수 판례평석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다.

* 법원 판례 속에 담겨있는 쟁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여 필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

이번 공모전에서는 ▲등록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 효력(2011후3698)에 대한 상표판례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2011후927)에 대한 특허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3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3건이 응모하였고, 12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1차 등급평가, 2차 항목별 점수평가를 하였으며,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엄인권, 우수상은 임영희, 양대승(이상 특허청), 장려는 박은국, 허성국, 허창환(공동, 동아대 로스쿨 재학), 김민철(변리사, 명신평특허사무소), 정다운(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에게 수여되었고,

최우수상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2015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우수 논문집’으로 발간되어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진흥회,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으로 배포되며, 수상자들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수상작들은 심판·심사 품질을 향상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판례평석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높ی겠다.”고 말했다.

붙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붙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지정과제 선정

- 지정과제 선정 : 2011후927(특허), 2011후3698(상표)

* 지정과제 의견수렴(청내외) 1~2월, 심의위원회 개최 2.16, 최종 선정 2.17

□ 판례평석 공모

- 공모과제 : 지정과제 및 자유과제
- 공모기간 및 응모자격 : '15. 3. 20 ~ 9. 20(7개월), 응모자격 제한 없음
- 응모 요령 : 심판원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

□ 평가 및 심의

- 평가단 구성 : 심판정책과장(평가단장), 심판원장 위촉 내외부 위원
 - * (내부위원) 심사국장 추천 심사과장, 기획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 추천 심판관
 - * (외부위원)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교수
- 1차 정성평가 실시 및 2차 정량평가 실시(10월)
 - 1차 A~E 5개 등급으로만 평가, 2차 입상작의 2배수 이내에서 선정
 - * 1, 2차 평가위원은 별도로 구성됨
- 판례평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11월)

□ 판례평석 시상식 개최(12월)

- 총 6명을 선정하여 장관상, 청장상 시상*, 시상식 개최(12월)

□ 판례평석 수상작 활용

- 심사·심판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청내 직원에 전파
- 판례평석 우수 논문집 발간 및 배포